임선비 할머니(78세)

임선비 어르신은 3남매를 두시고, 올해 78세가 되신 어르신입니다. 빈곤하지만 비교적 평온한 생활을 했던 어르신은 남편과 3남매를 양육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한 후 형제를 출산하였으나 며느리가 사기를 친 후 가출하여 이혼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들은 두문불출하며 행방불명 상태가 되었고, 가끔 연락을 취해오는 정도의 교류만 있어왔습니다. 다행히 두 명의 손자는 군복무 중이어서 특별한 양육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아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잦은 퇴직으로 일자리 없이 집에서만 지내고 있어 어머니를 전혀 부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딸은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연락관계를 완전히 두절하였고 자식들의 건강한 생활을 꿈꾸던 할아버지는 정신분열증으로 고생을 하다 단 한 번의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뜨고야 말았습니다. 현재는 낡고 좁은 집안에서 서로를 외면하는 50이 된 아들과 칠순의 노모가 쓸쓸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임선비 어르신은 경제적인 빈곤으로 삶의 힘겨움이 더해가고 있는 노인입니다. 어르신은 자식들의 건전한 삶을 이끌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정신분열증에 걸려 세상을 떠나신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서운함이 가득합니다. 경제적 · 정서적으로 큰 상처만 남긴 자식들 때문에 일체의 정부보조금도 받을 수 없어 그 힘겨움은 나날이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최성봉 군(18세)

성봉이의 부친은 1993년에 성봉이를 아동복지시설에 맡긴 후 양육 거부 및 연락 두절을 하였고, 모친 역시 성봉이의 부친과 이혼 후 연락을 완전히 두절하였습니다. 성봉이는 아동복지시설(청운보육원, 서울 소재)에서 3세부터 5세까지 생활하던 것으로 추정되며, 1995년에 구타로 인한 갈등으로 홀로 시설에서 도망치듯 나온 후 우연히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터미널까지 오게 되어 인근 유흥가에서 노숙을 하며 거리 노점(껌, 박카스, 인형, 고구마) 및 일용직(8세 때부터 신문배달, 우유배달을 함),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2002년에 평소 노래에 관심이 많던 성봉이는 박정소 성악가(현재 후견인)를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성악을 사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여 현재 재학 중인 대전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7년이 되어서야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되었습니다. 10여 년간 떠돌이 생활을 하는 동안 2번의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귀에 이명현상이 늘 있어 현재 건양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성봉 학생은 2007년 현재 대전예술고등학교 성악과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성악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하기 어려운 예능교육을 혼자 하고 있는 성봉이는 교육비는 물론 기본적인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워 월세가 3개월이나 밀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소외되고 외로움에 지친 불우한 이웃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우리 협회는 그들이 희망을 가슴에 품고 용기 내어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매월 1명에게 소정의 후원금(50만 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후원 대상자는 한국복지재단에서 추천받고 있으며, 동 기관을 통하여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